

전국 마리랑

정순자 시집

본북대 학교



E00834938

8

16
자

신아출판사

정순자 시집

전국 마리랑

인	쇄	2009년 12월 20일
발	행	2009년 12월 26일

저	자	정 순 자
발	행	인 서 정 환
발	행	처 신아출판사

출판등록	1984년 8월 17일 28호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전 화	(063)275-4000, 252-5633
팩 스	(063)274-3131
메 일	sina321@hanmail.net

값 10,000원

ISBN 978-89-5925-641-9 03810

- ※ 저자와 합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 이 책은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을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 2 / ॥ 시인의 말 ॥
아름다운 마음의 부자
- 10 / ॥ 서시 ॥
예술이 숨쉬는 전주
- 11 / 그대
- 12 / 전주 한옥 마을
- 13 / 2002, 온고을 전주에서
- 14 / 하늘이 가슴을 열어
- 15 / 3월이면
- 16 / 연꽃사랑
- 덕진공원에서
- 18 / 아름다운 강
- 19 / 나 홀로 춤을
- 20 / 살다가 보면
- 21 / 오미자 찻잔 속에
- 22 / 전주 아리랑
- 23 / 전주 아리랑
- 경기전 (1)
- 24 / 전주 아리랑
- 덕진공원 (2)
- 25 / 전주 아리랑
- 한옥마을 (3)
- 26 / 전주 아리랑
- 합죽선 (4)
- 27 / 전주 아리랑
- 한지 (5)

- 28 / 전주 아리랑
- 전주 팔경 스케치 (6)
- 31 / 전주 아리랑
- 한복 (7)
- 32 / 어느 날 오후
- 33 / 새만금
- 34 / 세계의 무대여
- 35 / 여명을 잉태한 새벽
- 36 / 전주 맛걸리
- 37 / 전주의 맛
- 비빔밥 (1)
- 38 / 전주의 맛
- 한정식 (2)
- 39 / 전주의 맛
- 콩나물해장국밥 (3)
- 40 / 천년 전주의 맛
- 41 / 효 간치 열무
- 42 / 전주 10미
- 46 / 무릉도원武陵桃源
- 48 / 전북의 산하여
- 49 / 로타리의 매력
- 50 / 햇빛찬 광진
- 51 / 꿈 · 사랑 · 그리움
- 52 / 노오란 민들레

- 53 / 봄비 내리는 날
54 / 산당화
55 / 봄 동산
56 / 기린봉에서 (1)
57 / 기린봉에서 (2)
58 / 기린봉 안개 (3)
59 / 가을 밤 축제
- 저녁 콘서트
60 / 서울의 달빛 바람 타고
61 / 첫눈이 내리는 밤
62 / 가을 여자
63 / 첫사랑의 연가
64 / 혼불
- 최명희 문화관에서
65 / 아! 전주
66 / 성소 같은 핏빛이여
67 / 숨죽여 울으시던 어머니는
우리들 영원한 고향입니다
68 / 하늘 연가
69 / 친환경 사랑 푸른 도시
- 청정도시 전주
70 / 봄바람 살랑 부는날
71 / 백목련 필 때면

- 72 / 오월의 장미
73 / 영혼의 소리
74 / 홍보석
75 / 청곡의 강
76 / 고하 문예관에서
77 / 초여름 숲에
78 / 서원書院너머 미나리
79 / 그대와 만나는 아침은
80 / 타인
81 / 거미줄
82 / 질병
83 / 그리운 웅달샘
84 / 양파
85 / 그릇은
86 / 상하이에서
87 / 후쿠오카에서
88 / 장가계에서
90 / 장마
91 / 가을
92 / 가을 잎새에
93 / 달빛 젖은 코스모스
94 / 가을 이야기

- 95 / 가을이 저만치 가네
96 / 대흥사 가는길
97 / 숲 속의 새같이
98 / 흙 냄새
99 / 그대의 목소리
100 / 사랑의 힘으로
101 / 천정궁
102 / 재래시장
104 / 흰눈 내리는 밤이면
105 / 그 여인의 고독
106 / 겨울나무
107 / 바람 같은 사람
108 / 눈 내리는 날
109 / 어느 날 우연히
- 노래방에서
110 / 눈 발자국
111 / 그때 그 시절
112 / 서울의 밤
113 / 내 고향은 빛과 그림자
114 / 침묵의 산이시여
115 / 길 위의 남녀
116 / 좁은 도시에

- 117 / 무등의 날개여
118 / 꿈꾸는 날개
119 / 행복
120 / 천년의 사랑이
- 최원용 박사
121 / 사람이 그리운 날
122 / KBS 아침마당
- 가족 노래자랑에서
123 / 여자 이야기 셋
124 / 남자 이야기 셋
125 / 첫사랑
126 / 고독의 쓴잔
127 / 슬라이드 빛줄기처럼
128 / 불어라 열풍아
129 / 등산객의 미소
130 / 비정
131 / 성녀 마더 테레사의 메아리
132 / 지상에서 영원으로
- 2009 · 하늘로 가신 가시고기 사랑
133 / 사랑의 샘터
- 얼굴없는 천사
136 / 시 · 평설
142 / 작가 연보

전주 맛걸리

농익은 술잔에
가슴속 이야기 꺼내놓고

세상사 전설이야기 속으로
이야기 전시장 삼천동 막걸리타운

하늘 항아리에
흰꼬두밥 · 누룩밀방석
부푼 가슴 피어 올라 숙성된
천연 자연 그대로의 맛

육해 공군 넘치는 푸짐한 술상
주모 농담에 흔들 흔들 취해

가슴속 흥건이 고인정
휘나래치는 막걸리 막걸리

전주의 맛

- 비빔밥 (1)

한국의 맛

풍요로운 전주의 맛

전주의 오방색 비빔밥

사골국물로 지어낸 고슬고슬한 흰 밥

그 위에 올라앉은

선홍빛 육회 샛노란 황포묵 새파란 미나리

까만 김가루 아삭한 콩나물

얹전하게 올라앉은 황백지단

밤 은행 대추 호도 잣

간간함과 웅고집으로

전주의 혼이 담긴

명인들의 비빔밥

이제는 한국을 비비고

세계를 비비는

전주의 비빔밥

상생과 화합

전주의 따스한 정 오감도

전주의 맛

- 한정식 (2)

출렁이는 서해바다 해산물
금만경 기름진땅의 곡식
무진장 산간 지대 산나물에
휘감긴 전주 한정식

하늘과 땅 바다
햇살 쫓아 먹고 자란
탕과 찌개, 나물류, 젓갈 30여가지
어머니 정성으로 빚어낸
음식 문화의 보고

전주의 훈훈한 인심 퍼주어
아쉬움 남기고 눈물짓는 발자국

어머니 혼이 담긴 손맛
상차림에 놀라고
맛깔스런 맛에 놀란 사람 사람
상생과 소통 속깊은 사랑
조선시대 음식 문화 역사의 향기

전주의 맛

- 콩나물해장국밥 (3)

맛과 멋의 고장 전주
그리운 님 찾아오시면
전주 콩나물 해장국밥에
모주 한 잔 드시면 만사 OK

밤새도록
먹거리 장단에 어깨춤 더덕실
한 곡조 뽑아 목청 트면
태조로 휘돌아
솔바람 대바람 소리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사 이런 저런 일
속 아픈 세상
속 쓰린 세상

콩나물해장국밥에
뜨끈한 모주 한 사발 드시면
만사 OK

천년 전주의 맛

한국의 맛
맛깔스런 전주의 깊은 맛

천년 전주 역사의
깊고 그윽한 맛 오감도

풍요로움이 가득 찬
대자연의 축복 속에
푸짐한 상차림

단아한 한옥 마을의
대청마루에서
정갈한 어머니의 손맛으로
빛어낸 전주의 맛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상생과 소통이 숨쉬는
따스한 정 흥건이 고인
천년 전주의 맛 대향연

한국의 맛 세계 맛
친환경 청정도시
전주 천년 어머니의 손맛이어라.

효 간치 열무

휘영청 밝은 밤
기린봉 달 따다 먹고 자란
임봉리 열무김치

효 간치* 숲 사이 그늘에서
사각사각 자란 열무

보리밥 큰 사발에
마당재 솔밭에서 자란
부추 썩썩 비벼 올린
한여름의 그 맛
그 누가 알리오

새콤하게 익어가는 열무김치
효간재 너머로 뭉게구름 두둥실 떠가는
한여름
우리네 삶도
푹푹한 사랑도 함께 익어간다

* 효 간치 : 전주시 기린봉 산자락 아랫마을 이름.

전주 10미

1. 기린봉 열무

휘영청 기린봉 달 따 먹고 자란
사각사각한 열무김치
우리들의 풋풋한 사랑도 익어간다

2. 신평리 호박

송천동 일대 신평리 푸른 빛 애호박전
호박나물 푸른 정기 솟아나고
겨울 날의 먹거리 늙은 호박떡 먹는 즐거운 미소

3. 삼례 무

삼례 황토밭 무 달고 사근사근한 맛
파란 머리 튼실한 총각무 동치미 깎두기
생채김치 새콤달콤한 그 맛을 그 누가 알리오
함박눈 펄펄 쏟아지는 날
뜨끈한 아랫목에 묻어 둔 무 조청
할아버지 감기약

4. 한내 게

맑은 물 흐르는 상관 골짜기
한내 모래밭에 털 달린 민물 게 실려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진상품

참게탕 참게장조림 한 마리
밥 한 그릇 똑딱 즐거운 밥도둑

5. 전주 남천 모자(모래무지)

맑게 흐르는 물 속에서
출랑출랑 사는 민물고기
깨끗하고 단백한 미식가들의 입맛에 끌려
버들잎 휘휘 늘어진 천변
평상에 올라앉아
오모가리탕 농익은 술잔에
시 한 수 읊조리는 시인의 가슴이 된다

6. 선왕골 파라시

팔월에 익는 홍시
인후동 서낭내가 전미동 서학동 감시장
사랑방에서먹는
시원하고 달콤함에 사르르 녹아 버린
입술에 달콤한 사랑
빨간 얼굴 더 빨개진 붉은 홍시
수줍은 새색시 사랑인가

7. 대흥리 서초

소양 대흥골 상관 마치고
담뱃대 물고 거드름 피는 서초 양반
담배를 빼꼼 빼꼼 피워 물고
밑반찬 아닌 서초 최고봉 맛이라고 일침

8. 오목대 황포묵

천하의 진미

탱글탱글한 녹두묵 색시

육회와 비빔밥에 올라앉은

녹두에 치자꽃물 들여 먹는 매력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수 울고간다

한민족의 애환이 서린 황포묵

9. 선 너머 미나리

화산동 일대에 미나리쫄

살찐 봄 미나리 그님에게 드리고 픈

미나리 아가씨 향그런 맛

군침돌아 꿀꺽 삼킨다

목젖 타고 흐르는 황학산 자락

푸른 꿈 열광하는 미나리 아가씨

숙취해소 고혈압 황달 이뇨작용

불면증에 향그런 전주 미나리

최고의 건강 맛자랑

10. 콩나물

전주 음식의 주인공

콩나물 시루 안에 들어앉아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어머니의 깊은 정성 먹는 콩나물

잔뿌리 없는 외뿌리
육질이 부드러워 맛있는 전주 콩나물

석까래 밑으로 떨어지는 물소리
고요한 밤의 적막을 깬다
얼큰하고 시원한 콩나물국
땀고동 울리는 콩나물 잔치